

# 대한민국의 국격제고 개도국 농업/농촌 교육이 해답입니다.



박 정 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장  
bagjh@ekr.or.kr

## 1. 한국발전과 원조

공적원조는 한국경제 발전의 밑거름이었다. 한국의 공적원조 수원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총 128억불의 공적원조는 한국경제발전의 seed-money로 작용하였다. 공적원조 자금의 성격은 1950년에서 1960년

대는 긴급구호 원조였으며, 1970년에서 1980년대까지는 군사 및 경제발전이었다. 한국의 공적원조의 목적, 형태 및 양식, 분야 및 구성, 원조의존도 및 공여국가의 자세한 내용은 <그림 2>와 같다.

이러한 공적원조는 한강의 기적으로 표현되는 한국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어 현재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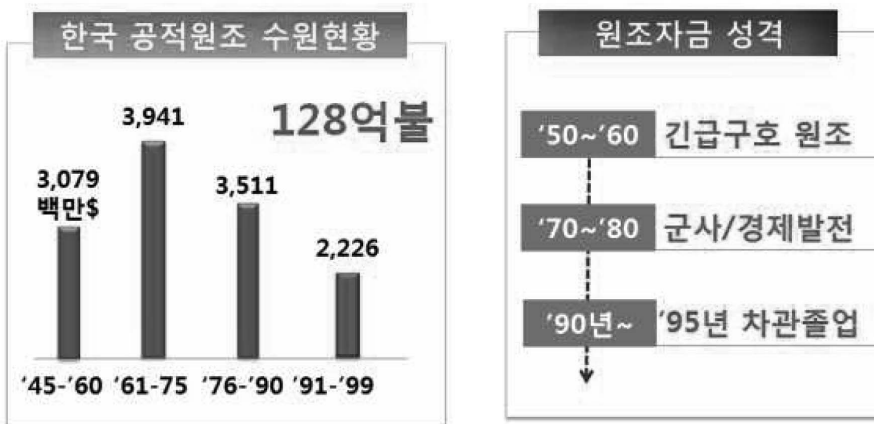


그림 1. 한국의 공적원조 수원현황 및 원조자금 성격

목적 및ยุค구	형태 및 양식	분야 및 구성	원조 의존도	주 공여자
1945 - 1952	• 긴급구호	• 증여(100%) • 구호물품	• 원조가 주요 외화 유입수단	• 미국
1953 - 1962	• 군사적 방어 • 인정 • 재건사업	• 증여(98.5%) • 물자 • 기술협력	• 농업 • 물자, 식량지원 • 군사원조 • 소비/중간재	• 미국 • UN
1963 - 1979	• 전환기 • 성장 및 투자	• 양허성차관(70%)	• 사회간접자본 수입대체 및 수출지 향적 사업 • 프로젝트 원조 및 중간자본재	• 절대/상대적 원조 중요성 감소 • 미국 • 일본
1980 - 1992	• 과도한 채무 • 안정 및 성장균형	• 비양허성차관	• IDA 협력대상국 명단 졸업	• 일본 • 독일 • 국제금융기구
1993 - 2003	• 금융위기	• IMF 구제금융	• 구조조정 프로그램	• ODA 협력대상국 명단 졸업 • IMF • IBRD

그림 2. 원조전환기에 따른 구분

고 있다. 한국의 공적원조는 포항종합제철건설, 경부고속도로공사 등 사회기간산업에 집중 투자되었다. 이러한 투자결과 한국은 수원국에서 원조국으로 바뀐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되었으며, 2009년 개발원조위원회

(DAC) 가입, G20 의장국, 무역규모 9위 등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한국의 공적원조 현황은 1987년부터 현재까지 약 124억불을 지원하고 있어 당당한 국제사회 일원으로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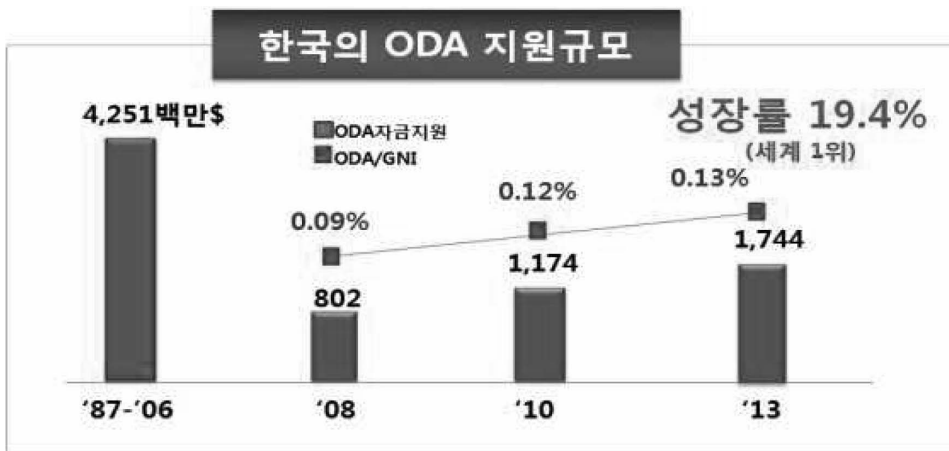


그림 3. 한국의 공적원조 지원현황

표 1. 한국의 국제공여실적 및 국제공여 성장률

국 가	공여실적(백만달러)						성장률 (10개년)	GNI 대비 구성비(%) 2011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Korea	265	366	752	696	816	1,325	17.5	0.12
Belgium	867	1,853	1,963	1,951	2,610	2,807	12.5	0.54
Canada	1,533	2,031	3,756	4,080	4,000	5,457	13.5	0.32
France	4,198	7,253	10,026	9,884	12,600	12,997	12.0	0.46
Germany	4,990	6,784	10,062	12,291	12,079	14,093	10.9	0.39
Italy	1,627	2,433	5,091	3,971	3,297	4,326	10.3	0.20
Japan	9,847	8,880	13,126	7,679	9,469	10,831	1.0	0.18
Netherlands	3,172	3,972	5,115	6,224	6,426	6,344	7.2	0.75
Norway	1,346	2,042	2,786	3,728	4,086	4,934	13.9	1.00
Spain	1,737	1,961	3,018	5,140	6,584	4,173	9.2	0.29
Sweden	1,666	2,400	3,362	4,339	4,548	5,603	12.9	1.02
Switzerland	908	1,299	1,772	1,685	2,310	3,076	13.0	0.45
U. Kingdom	4,566	6,262	10,772	9,849	11,491	13,832	11.7	0.56
U. States	11,429	16,320	27,935	21,787	28,831	30,924	10.5	0.20
<b>Total DAC</b>	<b>52,423</b>	<b>69,065</b>	<b>107,078</b>	<b>103,485</b>	<b>119,185</b>	<b>134,038</b>	<b>9.8</b>	<b>0.31</b>

\* 현재 세계 공여실적은 2011년까지 집계

할을 하고 있다. <그림 3>은 한국의 공적원조 지원현황을 나타낸다.

공적원조 수원국 이었던 한국은 지속적으로 공적원조 지원국으로 역할을 하고 있어 한국의 국제공여 성장률은 세계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GNI대비 공여실적은 <표 1>에 나타난 것과 같이 평균 미달인 것이 현실이다. 10년간의 한국의 공적공여 성장률은 약 17.5%로 공적공여 평균인 9.8%와 비교하여 약 2배 이상 높다. 그러나 GNI 대비 구성비는 0.12%로 평균 0.31%에 1/3 정도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은 한국의 국제사회의 역할을 보다 크게 강조하고 있다. 반기문 UN사무총장(2011년 8월)은 한국은 많은 개도국에 희망의 등대라 표현하였으며, 민주화와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해야한다고 하였다. 토니 블레어 前 영국총리(2011년 11월)는

한국은 경제개발 경험과 다양한 교훈을 전수해줄 수 있는 적절한 나라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한국은 개발분야에서 가장 성공적인 신화를 가진 나라라고 제프리 사스 컬럼비아대 교수(13.10)가 설명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공여 원조국으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하며 국제사회에서 보다 많은 역할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 2. 변화되는 공적원조의 방향

한국 공적원조는 H/W의 중심의 원조, 지역적으로 아시아에 편중되어 있었으며, 되돌려 받을 것을 생각하는 원조였고, 단기적인 효과창출에 집중하여 왔다. <그림 4>는 DAC 회원국과 비교한 한국의 공적원조의 방향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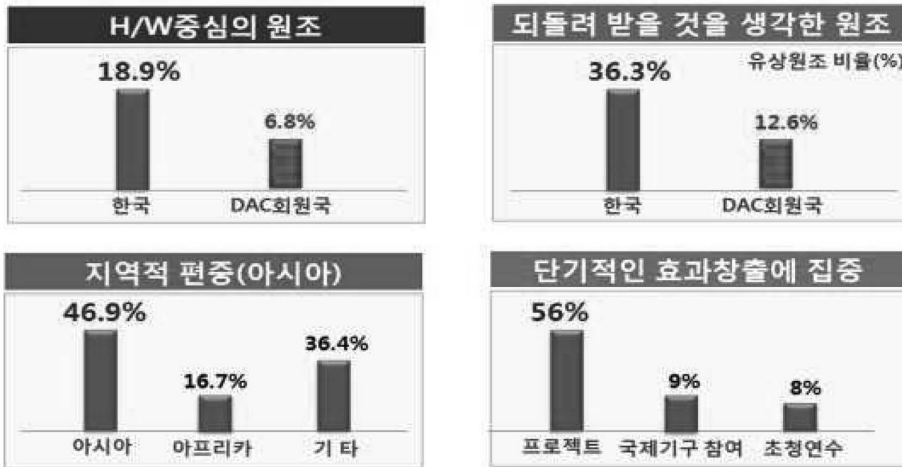


그림 4. DAC 회원국과 비교한 한국의 공적원조 방향



\* 정부(합동)의 원조시스템 개편방안, 2010

그림 5. 정부(합동)의 원조시스템 개편방안

그러나 국제사회에서의 공적원조는 개도국의 자립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공적원조의 방향도 전환이 필요하며, 현재 공적원조를 기본 틀을 새로 잡고 추진하고 있다. 즉 수원국에 희망을

주면서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개발경험을 고유하고 확대하여, 개도국 빈곤 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협력분야 발굴, 개발도상국 경제협력 촉진 등이 그것이다. <그림 5>는 2010년 정부(합동)의 원조시스템 개편방안을 나타낸다. 정부의 원조시스템 개편방안의 핵심은 한국형 ODA 모델이다. 한국의 발전경험과 수원국의 요구를 조합하여 경제(71개), 사회(52개), 행정(10개), 미래이슈(26개) 등 영역별 프로그램 Pool을 159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림 6>은 한국형 ODA 모델의 내용을 나타낸다.

### 3. 공적원조와 농업농촌

현재 1일 1불미만으로 생활하는 개도국은 빈곤인구의 80%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 개도국의 농업종사자는 선진국에 비하여 생산성이 10% 미만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이유는 개도국은 선진국에 비하여



그림 6. 한국형 ODA 모델의 내용

표 2. 선진국과 개도국의 농업부분 종사자 및 생산성 비교

구 분	농업부분 종사자 비율(%)			생산성 (\$ / 명)
	경제활동 인구(천만명)	천만명	(%)	
합 계	299	133	44.3	4,197
선진국	64	4	7.0	7,794
개도국	235	129	81.6	600

농업기반시설 및 정책 미비, 역량부족 등이 주요 원인이다. 따라서 개도국의 경우 빈곤 퇴치를 위하여 농업/농촌에 대한 선진국의 경험과 노하우 기반시설의 확충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표 2>은 농업부분 종사자에 따른 선진국과 개도국에 생산성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개도국에 대한 원조도 대부분 농업·농촌개발에 집중되고 있다. 공적원조기관의 지원현황을 보면 세계은행에서 농촌개발/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용자금 7~8%를 투자하고 있으며, 아시아개발은행에서는 용자금의 25%를 농촌개발부분에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세계식량기구에서도 농업 및 농촌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자립적 농촌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개도국에 대한 공여선진국의 지원도 농업·농촌분야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빈곤감소를 위한 농촌개발 및 농업생산성 증대에 독일은 농업생산성 향상 및 영농분야에 집중지원하며, 일본은 농업 생산성 향상, 빈곤퇴치,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농업·농촌분야 원조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 및 아프리카 등의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국의 농업·농촌개발 경험 전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국제원조의 정책방향을 한국형 ODA 모델 5개 분야에 농업분야를 포함하여 중점 육성하고 있다. 2011년 농림분야 ODA 전략을 수립하여 2013년 855억 원을, 2013년에는 1,029억 원을 투자하였다. <그림 7>은 한국의 국제원조 정책방향 및 농업·농촌분야 투자현황을 나타내며 <그림 8>은 한국의 농업분야 공적원조 현황을 보여준다. 한국농업·농촌분야에 있어서 새마을운동은 대표적인 브랜드이다. 새마을 운동에 대한 개도국의 평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새세움 메스틴 에디오피아 외교부장관은 새마을운동은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게 영감과 한국이 어떻게 빈곤을 탈출했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라 하였고(2009년 10월), 2013년 10월에는 한국의 새마을운동에서 아프리카 빈곤퇴치운동의 영감을 얻었다고 하였다. 이밖에 미얀마, 스리랑카, 우간다, 라오스 등 20여개 개도국에서 공식적으로 전수를 요청하였으며, 탄자니아는 새마을교육 후 식량작물인 카사바 자급률이 100%, 라오스는 농가소득이 3년 만에 6백 불에서 12백 불로 2배 증가하는 가시적 성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개도국 농업·농촌분야 국제원조는 새마을운동의 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이 개도국의 수요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7. 한국의 국제원조 정책방향 및 농업·농촌분야 투자 현황

#### 4. 농촌개발연수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 등 24개 간척사업으로 275천ha의 국토확장, 125천ha의 경리정리 등 생산기반조성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301권역 및 농지은행 등을 운영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한국 농업/농어촌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해외사업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해외농업투자현황은 <그림 9>와 같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한 해외 사업을 크게 4개 분야로 분류하면 해외기술용역/투자, 해외농업개발, 국제농업협력 및 외국인 초청연수 사업

이다. 해외기술용역 및 투자현황은 2013년까지 32개국 120여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기술용역 중심에서 투자사업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해오고 있다. 해외농업개발사업은 해외농장개발 맞춤형 민간지원사업을 중심으로 2013년까지 12개국 32개 민간기업에 1,007억원을 융자하였다. 국제농업협력사업으로는 개도국 농업·농촌발전을 위하여 사업발굴, 시행 등 공적원조를 15개국 26개 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한국의 농업/농어업 발전경험 전수를 위한 외국인 초청연수사업을 진행하여 연간 100여명 이상이 한국농어촌공사를 방문하여 2013년까지 95개국 2,575명 정도를 교육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상기와 같은 국내외 사업진행 경험과 실적으로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의 선진 농업/농촌 개발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하여 국제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고자 한다. 즉 한국농업배우기에 대한 개도국의 수요증대, 농업부분 해외진출 시 적극적 참여, 대상국가와 국민의 우군화, 한국의 농업/농촌 개발의 선진기술을 개도국에 전수함으로써 얻어지는 국격제고 및 위상화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농어



세계일보, 농업이 미래다(2013.12)

그림 8. 한국의 농업분야 공적원조 현황

해외기술응역/투자	해외 농업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년까지 32개국 120개사업 추진</li> <li>▪ 기술응역 중심에서 투자사업까지 사업영역 확장(러시아, 인니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농장개발 맞춤형 민간지원</li> <li>▪ '13년까지 12개국, 32개 민간기업 대상으로 1,007억원 용자</li> </ul>
국제농업협력	외국인 초청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도국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사업발굴, 시행 등 공적 원조</li> <li>▪ '13년까지 15개국 26개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농업발전경험 전수</li> <li>▪ 연간 100여명 이상이 공사를 방문</li> <li>▪ '13년까지 95개국 2,575명 교육</li> </ul>

그림 9. 한국농어촌공사의 해외사업 진행현황

촌공사가 앞장서 개도국을 대상으로 농업부분 경험을 전수할 수 있는 국제교육훈련센터를 설립 운영하고자 한다. 특히 농업분야 교육훈련 참여자는 현재 크게 증가

하는 추세로 국제교육훈련센터가 설립되면 충분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표 3>은 2010년부터 농업분야 참여자와 2030년까지 농업분야 교육 참여자의 예상치를 보여준다. 국제교육훈련센터가 건립되면 2016년에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며 2017년 1,313명을 시작으로 2030년 5,595명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개도국에 대한 한국의 선진농업·농촌 개발의 경험과 기술을 전수할 국제교육훈련센터는 2016년 개원을 목표로 50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국제교육훈련센터는 <표 4>와 같이 3단계로 추진되며, 1단계에서는 사업비 250억 원이 투입되어 강의실 12개, 국제회의실 300실, 게스트 하우스 140실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표 3. 농업분야 교육참여자 현황 및 예상치

연도	ODA 지원액(억원)		농업분야 초청연수(명)		국제교육훈련센터 수요(명)		
	전체	농업분야	전체	농업분야	기존수요 일부 담당	신규개발 기획연수	합계
2010	13,562	547	4,246	478	-	-	-
2011	14,667	429	4,359	597	-	-	-
2012	17,462	652	4,699	586	-	-	-
2013	24,000	750	4,546	562	-	-	-
2014	27,600	862	5,228	646	-	-	-
2015	31,740	992	6,012	743	-	-	-
2016	36,501	1,140	6,914	855	시범운영 실시 예정		
<b>2017</b>	<b>41,976</b>	<b>1,311</b>	<b>7,951</b>	<b>983</b>	<b>393</b>	<b>920</b>	<b>1,313</b>
2020	63,840	1,994	12,092	1,495	598	1,225	<b>1,823</b>
2025	128,406	4,012	24,322	3,007	1,203	1,972	<b>3,175</b>
2030	258,270	8,069	48,921	6,048	2,419	3,176	<b>5,595</b>

표 4. 국제교육훈련센터 건립 계획

구분	시설내용	사업비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의실 12개</li> <li>▶ 국제회의실 300실</li> <li>▶ 게스트하우스 140실</li> </ul>	250억원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의실 확충</li> <li>▶ 게스트하우스 60실</li> </ul>	170억원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연구동 신축</li> <li>▶ 주요 시설 리모델링</li> </ul>	80억원



그림 10. 국제교육훈련센터 마스터플랜

2단계에서는 170억 원이 투자되어 강의실 확충, 게스트 하우스 60실이 건립되며, 3단계에서는 80억 원이 투자되어 글로벌 연구동 신축, 주요시설 모델링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림 6은 국제교육훈련센터의 마스터플랜을 보여준다.

국제교육훈련센터에서는 농업/농어촌을 아우르는

다양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농업 경쟁력 강화 과정, 농어촌개발/복진 증진과정, 공무원/주민 역량 강화 과정 및 특별 기획연수과정 등이 포함된다. 교육기간은 2주부터 심화과정이 포함되는 6개월 과정을 포함하며, 회수도 년 1회에서 5회까지 다양하게 진행될 것이다. 국제교육훈련센터의 교육/연수과정(안)은 <표 5>과 같다.

표 5. 국제교육훈련센터 교육/연수과정(안)

교육/연수 과정		교육기간	회수/년
농어업 경쟁력 강화	▶농업생산기반 조성/정비	1개월	3
	▶농업관개/용수 관리(지하수)	2주	5
	▶농어업인 소득증대 사업 등	2주	5
농어촌 개발/복지 증진	▶통합적 농어촌 개발	2주	3
	▶농어촌 생활개선 사업 등	2주	2
공무원/주민 역량 강화	▶농어촌 현장 지도자 양성	2주	2
	▶(고위급)공무원 행정연수	1개월	1
특별 기획연수 과정 등	▶농업/농촌 종합개발 통합과정(새마을 운동, 생산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지역개발, 복지)	기본(3개월)	2
		심화(6개월)	1



국제교육훈련센터의 교육수요는 사전 수요조사 결과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 수요조사결과 2020년 중반이후에는 연간 교육 참여 예상인원이 3,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며, 예상인원에는 한국농업 배우기 수요 흡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KOICA에서 담당하고 있는 농업부분 교육수요의 일부를 담당하고, 지자체, 대학, 민간기관 등과의 교육과정 연계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면밀한 교육수요 발굴 및 홍보를 실시할 것이다.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사전수요발굴, 이를 통한 맞춤형 과정 설계로 연결하고 KOICA 등 관련기관 협조 하에 교육과정을 홍보하여 수요를 창출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10년 이내에 국내 최대 국제훈련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국제교육훈련센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지난 2014년 5월 15명 내외로 인프라 구축, 역량강화 등을 위한 운영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7월 자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향후 국내외 홍보/유관기관 네트워크 등을 구성하여 농어업부의 미래를 열고 교육훈련의 메카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5. 맺음말

국제교육훈련센터는 한국농업·농촌관련 우수한 경험과 선진기술을 개도국에 전수하여 해외 농업 진출 시 우군화, 대한민국의 국격제고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천불 이하이고 농업이 전체 산업 비중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동남아와 아프리카 등의 개도국은 농업부분의 개발경험과 노하우 전수를 절실히 원하고 있다. 국제교육훈련센터는 개도국의 빈곤해결 등 농업부분 발전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교육센터의 성공을 위해서 농공학 관련 교수, 전문가들은 그 동안의 경험과 지식 확산자로서, 미래세대인 학생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농공학과 관련 교수, 전문가, 학생 모두가 국제교육훈련센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주역이자 동반자이다.

## 참고문헌

1. 가르테에크보, 1997, 경관원론, 누리예.
2. 소원수, 1999, 경관계획의 기초와 실제, 서울: 대우출판사.